

이제는 불가능한 일

범죄 이전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은 많지 않다. 에덴 동산은 동방 어딘가에 있었고 그곳에서 땀 흘리지 않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자손을 낳지는 않았지만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아담이 가진 지혜와 통찰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고 무엇이랴 부르나 보시고자 하셨다. 아담은 각 생물을 불렀고 아담이 부른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지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랴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창세기 2:19**

이 외에 우리가 범죄 이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타락 이전에 아담이 소유했던 지혜와 영광, 힘과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부요와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움과 완결성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그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상상에 불과하며 그때의 실재를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로 오염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때를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 복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타락한 인생이 아무리 고결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영속성과 가치가 함의된 용어를 동원해도, 타락 이전의 상태는 우리의 이성인 닿을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 물론 이것도 죄의 결과 중 하나다.

눈금 지우기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추한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악한지 측정하는 눈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우리의 취향, 선호도,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입맛에 따라 옳고 그름을 나누고 판단한다.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창세기 3:5**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눈금을 지우는 일이다. 내 눈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금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눈금이 지워지지 않고 더 정교해지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눈금 위에 하나님의 눈금을 더한 것이다. 이런 경우 측정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로 타인이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더 엄격하고 잔혹하다. 이런 사람들이 측정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날은 쉽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말들

하와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말’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본질에서 멀어지고 초점을 잃게 되며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뱀의 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 뱀이 제시한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교회에 관한 갖가지 말과 이론이 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하자. 하나님에 관한 이론들은 날이 갈수록 세련되고 정교하며 들음직하고 신뢰할만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